

# 움직이는 사랑, 달마산 진달래



###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은 천지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지금은 꽃보다 신록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아름다운 것도 한 때이고, 우리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 사랑은 늘 움직인다.

초봄엔 여리고 가는 꽃눈을 숭상했었다. 단단한 가지의 껍질 속에 어찌면 저러한 것이나 수 있을까 신기하고 대견해했던 것이다. 연한 꽃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첫사랑처럼 마음이 설렜다.

환하게 세상을 밝히는 벚꽃의 인디안 핑크는 매혹적인 일본 기생을 연상하게 한다. 어린 시절 신작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하얀 분칠하고 빨간 입술고리를 살짝 올린 화려한 기모노 차림의 기생의 모습은 낯설지만 신비로웠다. 그 음흉함 속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은 자꾸 흘깃흘깃 뒤돌아보게 했었다.

나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흥미가 방향을 틀었다. 남쪽 바다 해남 쪽으로. 광주 한국산학협동연구회 일원으로 해남 달마산을 다녀왔다. 비가 오려는지 잔뜩 흐린 지난 토요일 아침, 40여명의 회원들과 광주 시청에서 만나 버스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달렸다. 미황사가 자리하고 있는 달마산에 명품길이 있다. 달마고도라 칭한다.

2017년 봄 어느 날엔가 그 길이 막 조성되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 한번 다녀왔기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서가는 길이었다. 그 당시 미황사 주지스님이 대중에게 보시(報施)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만드셨다 했다. 제주 올레길 등 순례길과 산책길이 여기저기만 들어지던 차, 달마가 다녀갈 정도로 수려한 경관과 기(氣)가 승한 이 달마산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다 했다.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만, 일일이 곡괭이, 삽과 호미로 조성했다 했다. 그렇게 조성된 길이라 좁고 돌덩이들이 발끝에 걸렸었지만, 오히려 그 수고로움이 마음 끝에 닿아 숙연해지게 했었다.

가파르게 깎아지른 절벽과 특별히 바다를 내려다보며 걷는 능선은 가히 남도의 소금강이라 칭할 만하다. 거기에 산약초의 향내와 다양한 산꽃들의 호위를 받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수련을 받는 듯 내 몸이 가벼워진다. 눈은 자연스레 하늘과 맞닿고, 지척의 남도바다 내음과 바람의 소리를 느끼다 보면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게 된다.

달마고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신박하다고 생각했다. '차마고도'를 연상하게 했고, 매일매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멀고 먼 길나서는 우리네 삶을 반영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 길이 괴롭고 험하기만 하면 금방 무너지겠지만, 때로 바람이 불어 땀을 식혀주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갈증을 해결시켜 주고,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며,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숨과 심을 허락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고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여정이 아닐까?

달마산의 기상이 그러했다. 원래 도솔암 주차장에서 시작해 미황사로 돌아오면 되는 산행이었다. 산악대장님이 A코스는 매우 가파른 절벽이 있어 험악하고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겁을 줬다. 중간에 줄타기 유격훈련도 감수해야 한다 했다. 나는 나의 기량과 체력에 맞게 B코스를 선택해 달마고도만 천천히 걸으려 했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눈을 들면 보이는 도솔암이 바로 400m 거리에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올라가 보자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 가파른 길이지만 올라갈 만했다. 도솔암 앞에 펼쳐진 멋진 풍광

에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다는 능선길이 바로 옆길에서 우리를 유혹했다. 우리는 그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중간에 몇 번 유격훈련처럼 줄을 타고 90도 가파른 벼랑을 내려가야 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은 보람을 안겨줬다. 지천에 진달래꽃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진회색 가파른 바위가 여러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흐린 날씨에 바람도 한 몫을 하고 있는 풍광 속에서 단연 주인공은 진달래였다. 다투듯이 활짝 핀 진달래 수만 송이 능선 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 산 전체가 한 폭의 진달래 수채화였다. 황홀했다.

나의 사랑이 또 움직였다. 나는 진달래와 짝사랑을 시작했다. 한차례 살짝 지나간 비를 맞으며 벼랑 끝 바위 사이에 뿌리내리고 위태롭게 피어있는 한 진달래 여인이 있었다. 회색빛 하늘과 암석을 배경으로 진달래색을 투명하게 발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차마 이를 수 없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선심을 쓰듯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진을 허락해 주니 나는 여인이 없었다. 혼자 한 사랑을 이룬 것처럼 기뻐했다.

풍광에 취해 걷다 보니 때를 놓치고 배가 고팠다. 삼삼오오 나누어 움푹한 곳에 자리를 깔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깻잎 김밥, 향긋한 두릅과 감칠맛 나는 물김치, 완두콩 가득한 찹밥, 진한 호박죽과 과일을 나눠 먹고 막걸리도 한 순배했다. 배부르고 만족해 하늘을 올려다보니, 세상에, 가늘고 긴 가지 끝에 핀 진달래 꽃송이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저렇게 예쁜 진달래 여인 밑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느라 호사가 어디 쉬운가?

달마산 품속에서 노닐다가 숲길을 걷고 내려오니, 굵은 비가 쏟아졌다. 그것도 고마웠다. 잘 가라고, 봄 가뭄을 좀이겨내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 달마산, 또 올게. 안녕, 내 사랑.

## 사회에 갇하라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한때 우리 사회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왔다. 1960년대 '사랑의 쌀 한 줌 모으기' 운동은 대표적인 나눔의 사례다. 경북적십자사 RCY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장학금은 지금까지 2만7000여 명의 고학생에게 30억 원이 넘는 지원을 이어왔다. 지금은 이 운동이 사라졌지만, 남은 기금은 여전히 누군가의 배움의 길을 밝히고 있다.

“나에게 고마워야 할 필요는 없고, 사회에 있는 것을 주었을 뿐이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 갇하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에 김장하 선생이 하신 말씀이다. 문전 재판관은 어렵고 힘든 대학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신 선생의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한다. 이 한 문장이 오늘날 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나눔을 실천해온 어른이 우리 지역에도 계신다. 전 남하토건 대표인 최상준 회장이다. 그는 자신에게는 몫시 인색했지만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개인재산을 기부하셨다. 모교인 광주공업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 헌납하고 석봉장학재단을 통해 지역의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 회장으로 재임하실 당시에도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1백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의 창립자인 마윈 회장도 중학생 시절, 호주에서 온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 인연을 잊지 않은 그는 호주의 뉴캐슬 대학에 2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지금도 매년 '마 & 폴리'라는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그저 어려운 때 받았던

기업가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출연한 장학금으로 성장한 인재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라 해도 과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제 장학사업은 기업가나 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헌혈자가 기증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그 금액이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제도가 생겼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846명에게 18억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되었고, 올해에도 우리 지역 고등학생 80명에게 1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헌혈도 하고 기부도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나눔이다.

김장하 선생이 남긴 “사회에 갇하라”는 말씀이 오늘날 더욱 울림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 위에 던진 돌 하나가 만든 파문처럼, 우리의 작지만 선한 행동도 이 사회를 정의롭고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사회에 갇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